

# 윤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갖추면 저출생 문제도 개선”

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  
권한이양·재정지원 등 적극 추진 표명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여건 조성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지방에 대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 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 건강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뜻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관한 보고 및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들은 토론에서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주형 기자

## 기폭 장치 설치한 북 쓰레기풍선 더 많아졌다

24일 살포 500여 개 중 480여 개 낙하  
“대북 확성기 방송 지속, 북한에 불리”

북한이 24일 살포한 쓰레기풍선은 25일 오전 8시까지 500여 개가 식별됐으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480여 개였다. 내용물 대다수가 종이, 비닐류의 쓰레기로,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쓰레기풍선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질 수 있도록 부착한 기폭 장치의 설치 비율이 초반보다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쓰레기풍선에 부착된 타이머 비율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비율을 공개하진 않았다.

전날 대통령실 경내 쓰레기풍선 낙하와 관련해서는 “일단 풍선이 부양하면 그것을

추적·감시한다”며 “용산 지역으로 대남 쓰레기풍선이 유입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 위해 요소를 평가하고, 사전에 배치된 화생방부대를 포함한 초동조치부대를 활용해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올 들어 10번째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에도 풍선이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풍선 살포 개수에 대해서는 “풍선 하나를 띄우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북서풍이나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제한적으로 풍선을 띄우는데 시간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풍선 내용물이 종이 오다가 여제는 비닐 쓰레기류가 들어가 있었는데 종이 부족으로 다른 쓰레기를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내용물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된 내용물 양을 소진하는 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북 확성기 전면 방송’에 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오히려 북한에 불리할 것”이라며 “북한은 계속 물건·물질을 소모하면서 대남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조아미 기자

## ‘춘천대첩’ 5대 영웅 조명한 다큐 영화 국회 상영

국회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 주관  
6·25전쟁 직전 북한군 저지 큰 기여

국회에서 6·25전쟁 시기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춘천대첩’을 기리는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의원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대첩 : 3일의 기억’ 상영회를 주관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원성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등 주요 참

전·호국·보훈단체들이 참석했다. 특히 최원일(예비역 해군대령) 전 천안함장, 전준영 천안함전우회장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 ‘춘천대첩 : 3일의 기억’은 춘천대첩을 승리로 이끈 5대 영웅을 자세하게 다뤘다. 6·25 남침 직전 북한군 동태가 심상찮음을 감지하고 전투를 준비한 김종오 대령의 역할, 북한군의 자주포 부대를 육탄 저지한 심일 소령의 용기와 공적을 담아냈다. 또 다른 영웅으로 이름 없는 민병대, 춘천중·춘천농업학교·춘천사범학교 학도병 500여 명, 피란을 포기하고 국군을 지원한 제사(製絲)공장 여공들의 일화를 집중 조명했다.

영화를 연출한 장이레 감독은 “춘천·홍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왼쪽 다섯째) 의원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춘천대첩 : 3일의 기억’ 상영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실 제공

천에서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저지했기 때문에 미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그 결과 ‘7일 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북한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투인데, 그 의미와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영화를 통해 알리

기로 결심했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한 의원은 “6사단 장병들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북한군과 처음 마주하는 적 자주포에 맞서 육탄으로 응전했다”며 “이들의 용기를 본 춘천시민들도 피란 보따리를 풀고 군번 없는 군인으로 함께 싸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